스페인의 거지들

연재 1회

"캠든 부인, 좋은 질문입니다. 부
작용도 있습니다." 수전은 말을
잠시 멈췄다. 그녀는 즐기고 있
었다. "또래들에 비해, 잠을 자
지 않는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IQ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더 영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더 즐거워합니다."

낸시 크레스

옮김 정소연 에디터 홍자은

Beggars in Spain by Nancy Kress
Copyright © 1991 by Nancy Kress
Published by agreement with Ralph M.Vicinanza, Ltd. through Shinwon Agency Co.
Original text: Nancy Kress, 〈Beggars in Spain〉,
〈Asimov's Science Fiction〉 1991

Translated by Jeong soyeon

1

웅 박사의 고급 앤티크 의자에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이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아니, 여기 있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과 그녀의 반항을 불쾌해 하는 사람 한 명이었다. 웅 박사는 예전에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었다. 채 2분이 지나기 전에 확신이 들었다. 여자 쪽은 조용히 분노하는 저항자였다. 아마 그녀가 지겠지만, 남자는 나중에 사소한 일들로 오랫동안 대가를 치르리라.

"제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하셨겠지요."

로저 캠든이 쾌활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바로 세부적인 논의로 들어갑시다. 괜찮죠?"

"물론이지요. 아기에게 어떤 유전자 조작을 하고 싶으신지 우선 모두 말씀해보시겠습니까?"

여자가 갑자기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20대 후반이었지만 – 틀림없이 후처일 터였다 – 벌써 시들어가는 듯한 안색이었다. 마치 로저 캠든의 아내로 버티는 일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 같았다. 쉽게 상상이 갔다. 캠든 부인의 머리카락은 갈색이었고, 눈도 갈색이었고, 피부 역시 볼에 홍조가 좀 있었다면 예삐 보였을지도 모를 옅은 갈색이었다. 세련되지도 싸 보이지도 않는 갈색 코트를 걸치고, 조금 금욕적인 느낌의 구두를 신었다. 웅 박사는 파일을 흘끗 보고 그녀의 이름을 확인했다. 엘리자베스였다. 박사는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종종 잊어버리리라고 확신했다.

그녀 옆에 앉은 로저 캠든에게서는 신경질적인 활력이 뿜어져나왔다. 그는 중장년이었고, 총알같이 생긴 머리통에 어울리지 않게 세련된 머리 모양을 하고 이탈리아 실크로 만든 정장을 입고 있었다. 캠든에 관해 확인하기 위해 파일을 다시 찾아볼 필요는 없었다. 바로 어제 《월 스트리트 저널》의 온라인판 첫 페이지에 총알 모양 머리 캐리커처가 실렸다. 캠든은 국경 간 데이터환 투자에서 큰 성공을 주도했다. 웅 박사는 국경 간 데이터환 투자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여자아이로요."

엘리자베스 캠든이 입을 열었다. 그녀가 먼저 말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 또한 웅 박사를 놀라게 했다. 영국 상류층 말투였다. "금발에 녹색 눈. 키 크고 날씬한 아이로."

웅이 미소를 지었다.

"이미 아시겠지만, 외모 인자 수정은 가장 쉬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날씬한 몸매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쪽으로 유전적 경향성을 부여하는 것뿐입니다. 아이의 식생활이 어떤가에 따라 자연히…."

"그래, 그래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지능, 높은 지능과 대담한 성격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캠든 씨, 죄송합니다만, 성격 인자들은 유전적으로 변형할 만큼 분석되지 않…."

"시험 삼아 말해본 겁니다." 캠든이 가볍게 미소 지으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엘리자베스 캠든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음악적 재능이요."

"자, 캠든 부인, 그에 관해서도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음악에 섬세해질 경향성뿐입니다."

"그 정도면 돼요. 물론 유전자와 관련된 잠재적인 건강 문제도 모두 교정하고 싶습니다." 캠든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웡 박사가 대답했다. 부부가 입을 다물었다. 지금까지 나온 요구 사항들은 캠든의 재력을 고려하면 상당히 무난한 편이었다. 대부분의 고객들을 대할 때마다 그는 상반되는 유전적인 경향성과 조작 과부하를 설명하며 비현실적인 기대들을 단념시켜야 했다. 박사는 기다렸다. 긴장이 열기처럼 실내를 채웠다.

"그리고." 캠든이 입을 열었다.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아이를 원합니다."

엘리자베스 캠든이 고개를 휙 젖히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웡 박사는 책상에서 종이 자석을 집어 올리며 싹싹하게 말했다. "어디에서 그런 유전자 조작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캠든이 씩 웃었다.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군요. 그 점은 높이 쳐드리지, 박사님."

웡 박사는 성질을 억눌렀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캠든이 정장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실크가 주름졌다가 다시 팽팽해졌다. 몸과 옷이 다른 계급 출신이었다. 웡 박사는 캠든이 요가이스트이자, 켄조 요가이 본인과 개인적인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캠든이 웡 박사에게 문서를 건넸다.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이 담겨 있었다.

"데이터 뱅크의 보안에서 허점을 찾아내려고 애쓰지 마시오, 박사. 못 찾을 테니까. 이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못 찾을 거요. 이제는 말이지."

그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어조가 바뀌었다.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잠을 안 자는 애들을 20명 만들어냈고, 그 중 19명이 건강하고 똑똑하며, 정신적으로 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 솔직히, 정상보다 나은 애들이지.

모두들 각별히 조숙하니까 말이야. 벌써 네 살인 가장 큰 애는 2개 국어를 읽을 줄 알 정도야. 당신이 몇 년 안에 이 유전자 조작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 생각이라는 것도 알아. 나는 그저 *지금 당장 내 딸아이를 위해 그걸 사고 싶을 뿐이야.* 달라는 대로 얼마든 내겠어."

웅 박사가 일어섰다. "캠든 씨, 우리끼리 일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데이터에 대한 절도 행위와…."

"도둑질이라니.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공공 영역으로 데이터 버블이 역류됐을 뿐이지. 증명하려면 골치가 아프겠지만."

"…이 특정한 유전자 조작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제안 양쪽 다 제 권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소의 이사회에서 검토해야 해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그 사람들과는 언제 만날 수 있나?"

"당신이 직접 말입니까?"

캠든이 앉은 채 박사를 쳐다보았다. 시선에서 50센티미터 낮은 자리에서도 그토록 자신만만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하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에게 직접 내 제안을 선보일 기회를 갖고 싶어. 좋은 사업이란 그런 법이지."

"캠든 씨, 이 일은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닙니다."

"단순한 과학 연구도 아니잖아." 캠든이 코웃음 쳤다.

"당신네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지. 공정 거래법 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에만 제공되는 특정한 세금 우대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말이야."

웅 박사가 캠든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잠시 시간이 걸렸다. "공정거래법은…."

"…사회적 약자인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고객의 경우에 적용된 적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네. 유일한 예외가 Y-에너지 도입에서의 담보 융자 거부 건이었지. 하지만 웅 박사, 적용될 수도 있어. 소수자들에게는 다수와 동일한 상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지. 연구소는 법정까지 가는 사태를 반기지 않을걸. 당신네 유전자 베타테스트에 참가한 스무 쌍 중에는 흑인도 유대인도 없지."

"법정이라니… 하지만 당신은 흑인이나 유대인이 *아니잖아!*"

"나는 다른 소수 집단이야. 폴란드계 미국인이지. 원래 성은 카민스키였어."

캠든이 마침내 몸을 일으키고 다정한 웃음을 머금었다.

"이봐, 터무니없는 소리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알아. 우리 둘 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기자들이 이 떡밥에 얼마나 흥겨워할지도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저 공식적인 발표 전에 불리한 여론을 일으키겠다는 협박으로 원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터무니없는 소장이나 제출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겠지. 사실, 협박 따위 하고 싶지 않아. 진심이네. 그저 당신들이 고안해낸 이 경이로운 진보를 내 딸에게 주고 싶을 뿐이야."

캠든의 표정이 바뀌었다. 웅 박사가 이 사람의 얼굴에서 보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동경.

"박사, 내가 평생 잠을 안 자도 됐다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성취했을지 아나?"

엘리자베스 캠든이 거칠게 말했다. "자금도 거의 안 자잖아요."

캠든은 마치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듯이 옆을 내려다보았다.

"뭐, 여보,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젊었을 때… 대학생 때였다면,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도 지원을… 흠. 이제 다 상관없는 얘기야. 상관있는 일은, 의사 선생, 당신과 나와 당신네 이사회가 합의를 해야 한단 점이지."

"캠든 씨, 제 사무실에서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댁이 내 뻔뻔스러움에 폭발하기 전에 말이지? 당신이 처음은 아니라네. 다음 주말까지 회의 일정이 정해지길 기다리고 있겠어. 물론 당신네가 편한 날, 편한 장소에서 말이야. 그저 내 개인 비서인 다이애나 클레버스에게 세부 사항을 알려줘. 원하는 시간으로 정하면 돼."

웅 박사는 그들을 문까지 배웅하지 않았다. 관자놀이가 쑤셨다. 엘리자베스 캠든이 문가에 서서 돌아보았다. "스무 번째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

"스무 번째 아이요. 남편은 19명이 건강하고 정상이라고 했죠. 스무 번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두통이 심해지며 머리에 열이 올랐다. 웅 박사는 답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는 모른다 해도 캠든은 벌써 그 답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신이 어쨌든 답을 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중에 자제심을 잃었던 일을 몹시 후회하리라는 것도.

"스무 번째 아기는 죽었습니다. 부모가 불안정한 사람들이었음이 드러났죠. 부부가 임신 중에 별거에 들어갔고, 산모는 잠을 자지 않고 스물네 시간 내내 울어대는 아기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캠든의 눈이 커졌다.

"애 엄마가 죽였어요?"

"실수였어."

캠든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조그만 애를 너무 세게 흔들었지."

그가 웅 박사에게 시선을 주며 얼굴을 찌푸렸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교대로 봐야지. 교대로 간호사를 돌 수 있을 만큼 부유한 부모들만 골랐어야 했소."

"끔찍한 일이군요!"

캠든 부인이 소리쳤다. 웡 박사는 그녀가 끔찍하게 생각한 것이 아이의 죽음인지, 간호사들의 부재인지, 연구소의 부주의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캠든 부부가 떠난 후, 그는 사이클로벤자프린-Ⅲ 10밀리그램을 삼켰다. 등 때문에, 오로지 등의 통증 때문이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쑤셨다. 그런 다음 그는 종이 자석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관자놀이에 쏠렸던 압력이 잦아들고 기분이 서서히 진정되었다. 아래로는 미시건호의 물이 호수 기슭에서 평화롭게 찰싹였다. 경찰들이 바로 어젯밤에 노숙자들을 급습해 몰아냈고,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애처롭게 짓밟힌 상식처럼 해진 이불, 신문, 비닐봉지 같은 노숙자들의 잔해만이 호숫가 공원 풀숲에 처박혀 있었다. 공원에서 자는 것은 불법이었다. 공원에 거주민의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집 없는 노숙자로 사는 것은 불법이었다. 웡 박사가 지켜보고 있는 사이, 작업복을 입은 공원 관리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신문지를 집어내 깨끗한 쓰레기통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웡 박사는 바이오테크 연구소의 이사장에게 연락하기 위해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회의실의 윤기 나는 마호가니 탁자에 남자 네 명과 여자 세 명이 둘러앉았다. *의사, 변호사, 인디언 추장이로군.* 수전 멜링은 웡 박사에서 설리번과 캠든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생각했다. 웃음이 나왔다. 웡 박사가 그녀의 미소를 보고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잘난 체하는 속물이었다. 연구소의 변호사인 주디 설리번이 캠든의 변호사에게로 몸을 돌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걸었다. 변호사는 소유당한 사람이라는 느낌의 마르고 소심한 남자였다. 인디언 추장 같은 소유주 로저 캠든은 회의실 안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그 작고 대담한 – 어떻게 했기에 맨손으로 시작해서 그만한 부자가 되었을까? 수전은 분명 결코 알 수 없으리라 – 남자는 흥분을 뿜어내고 있었다. 희색이 만연한 얼굴이 밝게 빛났다. 그 모습이 보통의 예비 부모들과 너무나 달라서 수전의 관심을 끌었다. 예비 엄마 아빠들은 – 특히 아빠들은 – 대개 기업 합병 협상이라도 하러 온 것처럼 행동했다. 캠든은 생일잔치에 참석한 듯한 모습이었다.

사실 그런 셈이긴 했다. 수전은 그를 향해 생긋 웃고, 그가 마주 웃어주자 기쁨을 느꼈다. 음험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직 순진함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환희 비슷한 감정이 들어 있었다. 침대 위에선 어떨까? 웡 박사가 젠 체하며 얼굴을 찌푸리더니 일어나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합시다. 소개부터 해야겠지요. 로저

캠든 씨와 캠든 부인은 물론 우리 고객이십니다. 이쪽은 존 야보르스키 씨로, 캠든 씨의 변호사입니다. 캠든 씨, 이쪽은 연구소의 법조부장인 주디스 설리번 씨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연구소장 브래드 마스타이너를 대신해 새뮤얼 크렌쇼 씨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면과 관계된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개발한 수전 멜링 박사입니다. 양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법률적인 논점에 관해…."

"계약서는 잠시 잊고 수면에 관련된 얘길 해봅시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캠든이 말을 잘랐다.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수전이 물었다. 캠든의 얼굴은 투박했지만 두 눈은 아주 새파랬다. 수전이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다. 이름도 없고 (야보르스키가 그녀가 아니라 남편의 변호사로 소개된 점으로 미루어) 변호사도 없는 캠든 부인은 기분이 나쁘거나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어느 쪽인지는 짐작키 어려웠다.

웅 박사가 불쾌해 하며 말했다. "그러면 우선 멜링 박사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수전은 질의응답 방식으로 캠든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벌써 회의 한 번 치만큼 웅 박사의 신경을 거슬렀기에 그녀는 고분고분 일어섰다.

"우선 수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실제로 수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EEG에 델타파로 나타나는 '서파 수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속 안구 운동 수면' 또는 REM 수면입니다. 훨씬 얕은 수면이고, 대부분 꿈을 꾸는 때이지요. 이 둘을 합쳐 '핵심 수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선택 수면'으로 불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수면 상태 없이도 아무런 이상 없이 생활하고, 어떤 단시간 수면인들은 아예 선택 수면을 취하지 않고 본래부터 하룻밤에 서너 시간만 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지. 스스로 훈련해서 그렇게 되었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보아하니 결국은 질의응답 시간이 될 모양이었다.

"네. 실제로 수면 메커니즘에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유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뇌간의 솔기핵이…."

웅 박사가 말을 끊었다. "수전, 그렇게 상세한 수준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합시다."

캠든이 말을 이었다. "솔기핵이 신경 전달 물질과 수면 압력으로 이어지는 펩티드 간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렇죠?"

참을 수가 없었다. 수전은 싱긋 웃었다. 레이저처럼 날

카톨고 무자비한 자본가인 캠든이 숙제를 칭찬받고 싶어 하는 3학년짜리처럼 엄숙해 보이려 애쓰며 앉아 있었다. 옹 박사는 속이 쓰린 표정이었다. 캠든 부인은 고개를 돌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향했다.

"네, 캠든 씨, 맞습니다. 조사를 많이 하셨군요."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캠든이 말했고, 수전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의 목소리에서 이와 같은 위엄을 마지막으로 느껴본 적이 언제였던가? 하지만 실내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음, 그렇다면, 사람들이 잠을 자야 하는 이유가 뇌 내에서 수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아시겠군요. 지난 20년 동안, 연구자들은 그것을 수면의 유일한 이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서파 수면이나 REM 수면이 수행하는 모든 기능은 신체와 뇌가 깨어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자는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적절한 호르몬 조절만 이루어진다면 깨어 있을 때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면은 진화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굶주린 원포유류가 배를 채우고 정액을 발사하고 나면, 수면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멈추게 함으로써 포식자들로부터 그 동물을 보호했습니다. 수면은 생존을 도왔지요. 하지만 이제 수면은 찌꺼기로 남은 메커니즘으로 맹장과 같은 흔적일 뿐입니다. 매일 밤마다 켜지지만 필요하지는 않은 기능이죠. 그래서 저희는 유전자에 포함된 그 스위치를 껐습니다."

옹 박사가 움찔했다. 그는 수전이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을 싫어했다. 어쩌면 그녀의 명랑한 접근 방식을 싫어하는지도 몰랐다. 마스타이너가 설명을 맡았다면 원포유류는 등장하지 않았으리라.

캠든이 물었다.

"꿈을 꿀 필요는 어떻게 됩니까?"

"꿈꿀 필요란 없습니다. 꿈은 수면 중에 포식자가 공격할 때를 대비해 대뇌 피질을 반각성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완충 장치의 흔적입니다. 완전히 깨어 있으면 더 낫지요."

"그러면 왜 자는 대신 완전히 깨어 있지 않습니까? 진화 초기부터?"

캠든은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수전은 그의 뻔뻔함을 즐기며 그를 향해 화사하게 활짝 웃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포식자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지요. 하지만 현대의 포식자로부터, 예를 들어 국경 간 데이터환 투자자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완전히 깨어 있는 편이 더 안전하겠지요."

캠든이 몰아붙였다.

"태아와 영아의 높은 REM 수면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역시 진화의 잔유물입니다. 대뇌는 수면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발달합니다."

"서파 수면시에 나타나는 신경 재생 과정은?"

"그 과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DNA를 프로그래밍하면 깨어 있는 동안 교정을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신경의 효율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파 수면 동안 높은 농도로 방출되는 성장 효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수전은 감탄하여 그를 바라보았다.

"자지 않을 때도 계속됩니다. 유전자 조절로 그 부분을 뇌의 송과선의 다른 변화들에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요?*"

캠든 부인이 불쑥 말했다. 입술 끝이 아래로 처졌다.

"젠장맞을 부작용은요?"

수전이 엘리자베스 캠든을 돌아보았다. 부인이 있는 줄도 잊고 있었다. 연하의 여자가 입술을 일그러뜨리고 수전을 응시했다.

"캠든 부인, 좋은 질문입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수전은 말을 잠시 멈췄다. 그녀는 즐기고 있었다.

"또래들에 비해, 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IQ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더 영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더 즐거워합니다."

캠든이 담배를 꺼냈다. 그 불결하고 케케묵은 습관에 수전은 놀랐지만, 곧 그것이 의도적인 행동임을 알아차렸다. 로저 캠든은 허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자신의 실제 감정에서 주의를 돌리고 있었다. 머리글자가 새겨진 금제 라이터는 천진하게 화려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REM 수면은 뇌간에서 방출되는 임의적인 신경 신호 격발이 대뇌 피질에 충격을 주는 과정입니다. 공격받은 가엾은 대뇌가 그 활성화된 이미지와 기억들을 납득 가능하게 재배열하려고 애쓴 결과로 꿈을 꾸게 되지요. 그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그러한 에너지 지출이 없다면, 수면을 취하지 않는 대뇌는 피로해지거나 손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입력받는 정보들을 더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의사들은 지난 60여 년 동안 우울한 환자의 기분을 향상시키는 항우울제도 REM 수면을 완전히 억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REM 수면을 억제하면 사람들은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은 활발하고 외향적이며… *즐거워합니다.* 달리 적절한 표현이 없군요."

"대가가 뭐죠?"

캠든 부인이 물었다. 그녀는 목을 꼿꼿이 들었지만 턱의 가장자리가 실룩이고 있었다.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부작용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말이겠죠." 캠든 부인이 쏘아붙였다.

수전이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까지는요."

"개돌은 겨우 네 살이잖아요! 많아 봤자!"

웅 박사와 크렌쇼가 부인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수전은 캠든 부인이 이를 깨달은 순간을 포착했다. 부인은 의자에 도로 몸을 묻고, 무표정한 얼굴로 모피코트를 여몄다.

캠든은 아내 쪽을 보지 않았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멜링 박사,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캠든의 어조가 마음에 들었다.

"보통은 그렇겠지요. 유전자 조작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말로, 아무리 찾아도 어떤 부작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캠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다.

"그저 이번 한 번만, 우주가 우리에게 뭔가 참으로 좋은 것, 참으로 한 걸음 진보한 것, 참으로 이로운 것을 아무런 숨은 벌칙 없이 선물했다고 믿는 일이 그토록 어렵습니까?"

"우주가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들의 지성이 선물한 것이지요."

캠든이 말했다. 수전은 지금까지 중에 가장 놀랐다. 그가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다. 숨이 가빠왔다.

"제가 보기에, 우주의 철학은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할 범위를 넘어섭니다." 웅 박사가 건조하게 말했다.

"캠든 씨, 더 이상 의학적인 질문 사항이 없다면, 이제 설리번 씨와 와보르스키 씨가 제기한 법적인 논점들을 검토해봅시다. 멜링 박사, 수고했어요."

수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캠든 쪽으로 다시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 그의 얼굴, 그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시카고 북부, 미시건 호숫가에 위치한 저택은 박사가 예상한 모습과 거의 흡사했다. 튜더 스타일의 거대한 건물이었다. 현관과 집 사이의 부지에는 숲이 무성했고, 저택과 물결 치는 호수 사이는 열린 공간이었다. 얼어붙은 잔디밭 곳곳에 눈이 남아 있었다. 바이오테크가 캠든 부부를 맡은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수전이 그들의 집으로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저택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차가 나타났다. 트럭이었다. 트럭은 구부러진 차도를 돌아가 저택 부지 측

면에 있는 고용인용 출입구로 향했다. 한 남자가 벨을 울렸다. 다른 남자가 짐칸에서 비닐 포장으로 싸인 유아용 놀이터를 내리기 시작했다. 분홍색과 노란색 토끼로 장식된 흰색 놀이터였다. 수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캠든이 직접 문을 열었다. 염려를 숨기려는 그의 노력이 한눈에 보였다.

"수전, 여기까지 직접 올 필요는 없는데! 내가 사내로 데리러 갔을 거요."

"아뇨, 로저, 그렇게 하시길 바라지 않았어요. 캠든 부인은 계신가요?"

"거실에 있소."

캠든은 수전을 석조 벽난로, 영국의 시골 귀족 저택 같은 가구들, 50센티미터쯤 높게 걸린 개와 배 사진들로 장식된 넓은 방으로 안내했다. 틀림없이 엘리자베스 캠든이 꾸민 방이리라. 수전이 들어섰지만, 부인은 안락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빨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필요 이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양막천자, 초음파, 랑스톤(langston)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태아는 건강하고 2주 째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자궁벽의 임플란트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라고?"

캠든이 말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들더니, 아내 쪽을 보고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도로 집어넣었다.

수전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캠든 부인, 정말 우연히도 지난달에 부인의 두 난소에서 모두 난자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중 하나를 유전자 수술을 위해 꺼냈죠. 하지만 더 우연히도 두 번째 난자가 수정되어 착상했습니다. 지금 부인은 둘을 임신하신 상태입니다."

엘리자베스 캠든이 몸을 굳혔다. "쌍둥이인가요?"

"아뇨."

수전은 대답했다가 그녀의 말뜻을 다시 깨닫고 고쳐 말했다.

"어, 네. 쌍둥이이지만 이란성입니다. 한쪽만 유전적으로 수정되었어요. 둘은 보통의 자매들 정도로만 비슷할 겁니다. 한쪽은 소위 보통 아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위 보통 아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점은 압니다."

"그렇소." 캠든이 말했다.

"아니, 저는 원했어요." 엘리자베스 캠든이 말했다.

캠든이 아내에게 수전으로서는 뜻을 알 수 없는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는 다시 담배를 꺼내더니 불을 붙였다. 수전 쪽에서는 그의 옆모습이 보였고, 그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캠든이 담배가 거기 있다는 점이나, 자기가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을지도 의심스러웠다.

"아기가 다른 아기의 존재에 영향을 받고 있소?"

"아니오. 물론 아닙니다. 그 들은 그저…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산시킬 수 있나?"

"둘을 동시에 유산시키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수정하지 않은 태아를 없애면 자궁막에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 다른 한쪽도 자연스럽게 유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전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물론 다른 길이 있기는 합니다.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씀드렸듯이, 시험관 수정이 두 번 만에 성공한 것은 무척 운이 좋은 경우였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여덟 번이나 열 번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그 과정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이 둘째 태아의 존재가 내 딸에게 해가 되오? 영양 공급을 빼앗아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니면 임신 후기에 딸애에 관계된 요소를 변형시킨다든지?"

"아니오. 단지 조산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태아 둘은 자궁에서 훨씬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만약 너무 비좁아지면 출산이 예정보다 빠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얼마나 빨라지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인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캠든은 계속 담배를 피웠다. 문가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주인님, 런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가이 씨 사무실의 제임스 켄들입니다."

"받겠네."

캠든이 일어섰다. 수전은 아내의 얼굴을 살피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입을 열고 아내에게 말했다.

"알았어, 엘리자베스. 알았다고."

그는 방에서 나갔다.

오랫동안 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수전은 실망감을 느꼈다. 이런 캠든의 모습을 기대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캠든이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서서히 깨달았다.

"아아, 그래요, 의사 선생님. 그는 저런 식이죠."

수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고압적인 남자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에요."

부인이 기쁜 얼굴로 부드럽게 웃었다.

"둘이라니. 혹시… 다른 한 쪽의 성별이 뭔지 아나요?"

"둘 다 여자아이입니다."

"알다시피 난 딸을 원했어요. 이제는 딸을 갖게 되었네요."

"그러면 임신을 유지하실 생각이군요."

"아, 그럼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녀의 일은 끝났다.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에 타는데, 캠든이 코트도 걸치지 않고 저택에서 뛰어나왔다.

"수전!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어. 우리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와준 점 말이야."

"인사는 벌써 하셨잖아요."

"그랬지. 음, 둘째 태아가 내 딸애에게 해가 안 되는 게 확실해?"

수전은 의도적으로 말했다.

"유전자 수정한 태아도 자연스럽게 수태된 태아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금 아련했다.

"내가 그 쪽도 똑같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군. 하지만 신경이 쓰이지 않아. 내가 뭐 하려 없는 감정이 있는 척하겠어? 특히 당신에게?"

수전은 차 문을 열었다. 그녀는 이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면 생각을 바꾸었거나, 어쨌든. 그러나 그때, 캠든이 차 문을 닫아주려 몸을 숙이고, 유혹하려는 뜻이나 간살스러운 희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태도로 입을 열었다.

"유아용 놀이터를 하나 더 주문하는 편이 낫겠지."

"네."

"그리고 유아용 카시트도."

"네."

"하지만 야간 근무 간호사를 한 명 더 고용할 필요는 없군."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당신도 그러면 돼."

그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너무나 예의 바르고 정중한 키스라 수전은 깜짝 놀랐다. 욕망이나 정복욕을 보였다면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키스는 놀라웠다. 캠든은 수전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차문을 닫고 등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수전은 현관으로 차를 몰았다. 감탄이 충격을 몰아낼 때까지,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뻔뻔하고 정중한 키스, 계획적인 수수께끼였다. 다른 무엇으로도 다음 키스가 있으리란 것을 그토록 확실하게 약속할 수 없었으리라.

캠든 부부가 딸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일지 궁금했다.

웅 박사는 조명을 낮춘 병원 복도를 걸어갔다. 산부인과 간호사실에서 간호사 한 명이 웅 박사를 막아서려는 듯이 앞으로 나왔다가 – 면회 시간이 한참 지난 한밤중

이었다 – 박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간호사실로 조용히 돌아갔다. 모퉁이를 돌자 신생아실의 창문이 있었다. 짜증스럽게도 수전 멜링이 유리에 딱 붙어 서 있었다. 더 짜증스럽게도 그녀는 울고 있었다.

웅 박사는 자신이 그 여자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어떤 여자도 좋아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탁월한 지성을 가진 여자들조차도 감정에 휩쓸려 바보처럼 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저길 봐요." 수전이 얼굴을 닦고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박사님, *저 아기 좀 보세요.*"

유리 뒤에서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로저 캠든이 흰색 속옷을 입고 분홍색 이불을 덮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캠든의 푸른 눈 – 연극적인 푸른색이었다. 남자라면 그렇게 지나치게 화려한 눈을 가지지 않아야 마땅했다 – 이 빛났다. 아기의 머리통은 금색 잔털로 덮여 있었다. 눈은 컸고 피부는 진주빛이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캠든의 두 눈이, 다른 어떤 아기도 이런 모습인 적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웅 박사가 물었다. "출산에는 이상이 없었나?"

"네." 수전 멜링이 훌쩍였다.

"더할 나위 없이 수월했어요. 엘리자베스는 건강해요. 지금은 자고 있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는 제가 만난 그 누구보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수전이 소맷자락으로 코를 닦았다. 웅 박사는 그녀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가 한 번 약혼한 적이 있었다는 얘길 했던가요? 의대생이던 15년 전에? 그이가 너무 평범하고 지루해져서 파혼했죠. 아, 세상에, 이런 얘길 당신에게 해선 안 되었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웅 박사는 수전에게서 물러섰다. 유리창 뒤에서 로저 캠든이 아기를 바퀴가 달린 작은 아기 침대에 뉘었다. 침대의 이름표에는 '캠든 딸 #1 2.68킬로그램'이라고 쓰여 있었다. 야간 근무 간호사가 간섭하지 않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웅 박사는 캠든이 신생아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수전 멜링이 캠든에게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를 찾으러 갔다. 상황으로 미루어보건대, 멜링의 보고서는 신뢰할 만하지 못할 터였다. 유전자 조작의 결과를 통제받지 않고 세부 사항까지 빠짐없이 기록할 전에 없이 완벽한 기회를 앞에 두고, 멜링은 자신의 나약한 감정에 더 취해 있었다. 보아하니 웅 박사가 산부인과에 연락한 다음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모양이었다. 그는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싶었다. 캠든의 품에 안긴 분홍빛 뺨의 아기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캠든 딸 #2 2.31킬로그램'이라고 쓰인 유리벽 아기 침대에 누워 있는 아기의 출생에 관해

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싶었다. 얼굴은 붉고 얼룩덜룩하고 머리카락은 짙은 색인 아기가 분홍색 이불을 덮고 구부정하게 누워 잠들어 있었다.

2

레이샤의 첫 기억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유하는 선들이었다. 레이샤는 선들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만져보려고 손을 뻗어 주먹을 쥐었을 때, 손 안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레이샤는 부유하는 선들이 빛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햇살이 침실의 커튼, 식당의 목제 블라인드, 온실의 격자창 사이로 막대 모양으로 기울어져 들어왔다. 금빛 흐름이 빛이라는 것을 깨달은 날, 그녀는 더없는 발견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큰 소리로 웃었고, 아빠는 꽃병에 꽃을 꽂다 말고 그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집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빛은 호수에서 넘실대다 튀어 올라 높고 하얀 천장을 가로질러 흐르고 윤기 나는 나무 바닥에 고였다. 레이샤와 앨리스는 끊임없이 빛을 통과하며 움직였다. 레이샤는 가끔 멈추어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빛이 얼굴 위를 흐르게 했다. 마치 물처럼, 그녀는 빛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멋진 빛은 물론 온실에 있었다. 아빠가 돈을 벌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즐겨 머무르는 곳이었다. 아빠는 흥얼거리며 화분을 심고 나무에 물을 주었다. 레이샤와 앨리스는 커다란 보라색 꽃들이 자라는 온실의 어두운 쪽에서 작은 노란 꽃들이 핀 밝은 쪽으로, 빛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며 기분 좋은 흙내음이 나는 꽃들이 놓인 나무 탁자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성장이란." 아빠가 레이샤에게 말했다.

"꽃들은 늘 약속을 지키지. 앨리스, 조심해! 난 화분을 넘어뜨릴 뻔했잖아!"

그러면 말 잘 듣는 앨리스는 한동안 뛰지 않았다. 아빠는 레이샤에게는 한 번도 뛰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다.

시간이 좀더 지나면 빛이 사라졌다. 앨리스와 레이샤가 목욕을 하고 나면, 앨리스는 말이 없어지거나 까탈스럽게 굴었다. 레이샤가 앨리스에게 하고 싶은 놀이를 고르라고 해도, 가장 좋은 인형을 모두 다 가져도 된다고 해도 레이샤와 잘 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유모가 앨리스를 침대로 데려가고, 레이샤는 아빠가 서재에서 돈을 버는 서류들을 보면서 일해야 한다고 할 때까지 아빠와 좀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레이샤는 아빠가 가야 한다고 할 때마다 좀 서운했지만, 서운함은 오래 가는 법이 없었다.

곧 맴젤이 와서 레이샤가 좋아하는 수업을 하기 때문이었다. 수업은 정말 흥미진진했다! 레이샤는 벌써 노래를 20곡이나 부를 줄 알았고, 알파벳을 다 쓸 줄 알았으며 50까지 셀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자 빛이 돌아왔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다.

레이샤는 아침 식사 시간만은 좋아하지 않았다. 아빠는 회사에 갔기 때문에 레이샤는 앨리스와 엄마와 넓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엄마는 레이샤가 좋아하는 붉은 겉옷을 입었고, 나중처럼 이상한 냄새를 풍기며 이상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 식사는 재미가 없었다. 엄마는 언제나 '그 질문'부터 했다.

"사랑스런 앨리스, 푹 잘 잤니?"

"네, 엄마."

"멋진 꿈을 꾸었니?"

오랫동안 앨리스는 안 꿨다고 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앨리스가 말했다.

"말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제가 말을 탔어요."

엄마는 박수를 치더니, 앨리스에게 키스를 하고 달콤한 롤빵을 하나 더 주었다. 그 다음부터 앨리스는 언제나 엄마에게 얘기할 만한 꿈을 꾸었다.

레이샤는 한 번 "저도 꿈을 꿨어요. 유리창으로 빛이 들어와서 저를 이불처럼 감싸더니 제 눈가에 뽀뽀하는 꿈을 꿨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엄마가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커피가 잔에서 넘쳐흘렀다.

"레이샤, 거짓말하지 마. 넌 꿈을 꾸지 않았어."

"꿈꿨어요."

"잠을 자는 아이들만 꿈을 꿀 수 있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넌 꿈을 꾸지 않았어."

"꿨어요! 꿈꿨단 말이에요!"

레이샤는 고함을 질렀다. 레이샤는 마치 실제로 꿈을, 유리창을 통해 흘러들어와 그녀를 금빛 이불처럼 감싸 안는 빛을 본 것 같았다.

"거짓말쟁이 아이는 봐주지 않을 거야! 레이샤, 엄마 말 알겠니? 안 봐줄 거야!"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레이샤가 소리쳤다. 레이샤는 자기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그보다 엄마가 더 싫었고, 그것도 잘못된 행동이었다. 게다가 앨리스는 뻣뻣하게 얼어붙은 채 눈을 크게 뜨고 앉아 있었다. 레이샤의 잘못 때문에 앨리스가 겁을 먹었다.

엄마가 새된 소리로 유모를 불렀다.

"유모! 유모! 당장 레이샤를 방으로 보내요. 거짓말을 하는 아이는 교양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레이샤가 울기 시작했다. 유모가 레이샤를 안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레이샤는 아직 아침도 못 먹었지만,

식사는 아무래도 좋았다. 겁먹은 채 부서진 빛의 조각들을 반사하는 앨리스의 두 눈이 레이샤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레이샤는 금세 울음을 그쳤다. 유모가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같이 데이터 점프 놀이를 했다. 그 다음에는 앨리스가 방으로 돌아왔고, 유모는 둘을 차에 태워 레이샤가 꿈에서도 보지 못했던 – *앨리스도 못 보았을* – 굉장한 동물들이 있는 시카고의 동물원으로 데려갔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자기 방으로 가 있었다. 레이샤는 이제 엄마는 밤까지 방에 틀어박혀 유리잔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뭔가를 채우며 보낼 테니, 엄마와 마주칠까 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에 레이샤는 엄마의 방에 갔다.

"화장실에 갈래요."

레이샤가 말하자 맴젤이 "도와줄까?"라고 물었는데, 아마 앨리스는 여전히 혼자 화장실에 못 가기 때문인 것 같았다. 하지만 레이샤는 알아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맴젤에게 고맙다고 했다. 레이샤는 맴젤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아무것도 누지 않으면서 변기 위에 잠깐 앉아 있었다.

레이샤는 까치발로 복도를 걸어갔다. 처음에는 앨리스의 방에 갔다. 아기 침대 옆 벽의 작은 등이 방을 밝히고 있었다. 레이샤의 방에는 아기 침대가 없었다. 침대살 사이로 동생을 살펴보았다. 앨리스는 눈을 감고 옆으로 누워 있었다. 눈꺼풀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처럼 빠른 속도로 떨렸다. 앨리스의 턱과 목은 늘어진 것처럼 보였다.

레이샤는 아주 조심스레 문을 닫고 부모님 방으로 갔다.

부모님은 아기 침대가 아니라, 둘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더 누워도 될 만큼 공간이 남는 엄청나게 큰 침대에서 잤다. 엄마의 눈꺼풀은 떨리지 않았다. 엄마는 바로 누워 코로 헝헝 소리를 내고 있었다. 엄마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심하게 났다. 레이샤는 물러나 발소리를 죽이고 아빠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빠는 앨리스와 비슷해 보였지만, 턱과 목이 더 늘어져 뒷마당의 넘어진 텐트처럼 피부가 겹겹이 쳐져 있었다. 이런 모습의 아빠는 무서웠다. 그때 갑자기 아빠가 눈을 떴고, 레이샤는 비명을 질렀다.

아빠가 침대에서 굴러내려와 레이샤를 안아올리고 얼른 엄마 쪽을 살폈다. 엄마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빠는 팬티만 입고 있었다. 아빠가 레이샤를 복도로 데려가자, 맴젤이 서둘러 다가오며 말했다.

"이런, 캠든 씨, 죄송합니다. 아이가 그저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괜찮아. 내가 데려가지."

"싫어요!"

레이샤가 크게 소리쳤다. 아빠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 목은 우스꽝스러웠고 엄마 때문에 방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빠는 레이샤를 안고 온실로 갔고, 레이샤를 벤치에 앉히더니 식물들을 덮는 데 쓰는 녹색 비닐로 몸을 감싸고 레이샤 옆에 앉았다.

"자, 레이샤, 무슨 일이니? 뭘 하고 있었어?"

레이샤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든 사람들을 보고 있었지?"

아빠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상냥했기 때문에 레이샤는 "네" 하고 입속으로 웅얼거렸다. 즉시 기분이 나아졌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기분이 좋았다.

"너는 잠을 자지 않으니 호기심이 생겨서 잠든 사람들을 보았던 거지? 네 동화책에 나오는 호기심 많은 조지처럼?"

"네. 저는 아빠가 밤새도록 서재에서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아빠가 웃었다.

"밤새도록은 아니란다. 밤에도 일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잠깐이지만 잠을 자야 해."

아빠는 레이샤를 무릎 위에 앉혔다.

"나는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된단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밤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은 제각기 달라. 그리고 몇몇 사람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은 너와 같아. 너는 전혀 잠을 자지 않아도 되지."

"왜요?"

"넌 특별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단다."

"왜요?"

"네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너만의 개성을 꽃피우게 하려고 그랬단다."

레이샤는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려 아빠의 품 안에서 몸을 비틀었다. 아빠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가 긴 도자기 화분에 심은 화초에서 자라난 한 송이 꽃으로 손을 뻗었다.

"레이샤, 보렴. 이 나무가 이 꽃을 만들었단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야. 이 나무만이 이렇게 생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단다. 이 꽃은 저 위에 매달린 화분에서는 자라지 못해. 저쪽 풀들도 마찬가지야. 오직 이 나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이 나무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꽃을 피워내는 것이란다. 이 꽃이 나무의 개성이야. 다시 말해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이 나무만이*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야. 그 외에는 다 상관없는 일이지."

"아빠,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거란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 당장 이해하고 싶어요."

레이샤가 말하자, 아빠는 순수한 기쁨에 사로잡혀 웃음을 터뜨리고 레이샤를 꼭 끌어안았다. 아빠에게 안기니 기분이 좋았지만, 레이샤는 여전히 이해하고 싶었다.

"아빠가 돈을 버실 때요, 그게 아빠의 개스… 그거예요?"

"그래." 아빠가 기꺼워하며 대답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돈을 벌 줄 몰라요? 저 나무만 저 꽃을 피우는 것처럼?"

"다른 누구도 아빠처럼 돈을 벌지 못하지."

"그 돈으로 뭘 하세요?"

"널 위해 이것저것 산단다. 이 집, 네 옷들, 널 가르치는 멤젤, 타고 다닐 차 같은 것들 말이야."

"저 나무는 저 꽃으로 뭘 하나요?"

"단지 번성할 뿐이야."

아빠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다.

"탁월함만이 가치 있단다. 개인의 노력으로 뒷받침된 탁월함 말이다. 오직 *그것만이* 가치 있지."

"아빠, 추워요."

"그럼 이제 널 멤젤에게 도로 데려가야겠구나."

레이샤는 일어나지 않았다. 손가락을 하나 내밀어 꽃잎을 건드려보았다.

"아빠, 전 자고 싶어요."

"아가, 아냐. 잠은 그저 잃어버리는 시간, 낭비되는 삶일 뿐이다. 작은 죽음과 같지."

"앨리스는 자요."

"앨리스는 너와 달라."

"앨리스는 특별하지 않나요?"

"그래. 네가 특별해."

"왜 앨리스도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앨리스는 저절로 만들어졌단다. 내가 특별하게 해줄 기회가 없었어."

모두 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다. 레이샤는 꽃잎을 쓰다듬던 손을 멈추고 아빠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아빠가 레이샤를 응시하며 미소 지었다.

"귀여운 호기심꾸러기야, 어른이 되면 너는 스스로의 탁월함을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특별한 것, 이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되겠지. 어쩌면 자그마치 켄조 요가이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몰라. 그는 전 세계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요가이 발전기

를 발명했단다."

"아빠, 화분 덮개를 쓰고 있으니까 우스워 보여요."

레이샤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도 웃었다. 그러나 레이샤가 이어서, "어른이 되면 저는 제 특별함으로 앨리스도 특별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라고 말하자 아빠는 웃음을 멈추었다.

아빠가 레이샤를 맴젤에게 데려갔고, 맴젤은 레이샤에게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이름 쓰기가 어찌나 재미있는지, 레이샤는 아빠와 나누었던 혼란스런 대화를 잊어버렸다. 각기 다른 세 글자가 한데 모여 레이샤 *자신의* 이름을 이루었다. 레이샤는 웃으며 이름을 쓰고 또 썼고, 맴젤도 웃었다. 하지만 나중에 아침이 되자 레이샤는 다시 아빠와 나눈 이야기를 생각했다. 낯선 단어들을 마치 작고 딱딱한 돌처럼 머릿속에서 굴리고 또 굴렸다. 하지만 레이샤가 그날의 대화에서 가장 자주 생각한 부분은 말이 아니었다. 레이샤의 특별함으로 앨리스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을 때 아빠의 얼굴에 떠올랐던 불쾌한 표정이었다.

멜링 박사는 매주 레이샤와 앨리스를 보러 왔다. 혼자 올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올 때도 있었다. 레이샤와 앨리스는 자주 웃고 밝고 따뜻한 눈매를 가진 멜링 박사를 좋아했다. 아빠도 종종 같이 있었다. 멜링 박사는 그들과 놀이를 했다. 처음에는 앨리스, 레이샤와 따로 놀았고, 그 다음에는 셋이 같이 놀았다. 둘의 사진을 찍고 몸무게를 쟀다. 탁자 위에 뉘고 관자놀이에 작은 금속을 붙였다. 무서울 것 같지만, 누워 있는 동안 재미있는 소리를 내는 기계들을 잔뜩 볼 수 있어서 무섭지 않았다. 멜링 박사는 아빠만큼이나 질문에 답을 잘했다. 레이샤는 한 번 아빠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멜링 선생님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켄조 요가이처럼?"

아빠는 껄껄 웃더니 멜링 박사 쪽으로 잠깐 시선을 주고 말했다.

"아아, 그럼, 그렇고말고."

다섯 살이 되자 레이샤와 앨리스는 학교에 들어갔다. 아빠의 운전기사가 그들을 매일 시카고까지 데려갔다. 레이샤는 앨리스와 다른 반에 들어가게 되어 실망했다. 레이샤의 반 학생들은 모두 연상이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레이샤는 학교에 푹 빠졌다. 학교는 매혹적인 실험 도구, 수학 문제로 가득한 전자 서랍, 지도에서 나라를 같이 찾아볼 다른 아이들로 가득했다. 반년 뒤에 레이샤는 또 다른 반으로 옮겼다. 새 반 학생들은 이전 반 학생들보다 더 나이가 많았지만 상냥했다. 레이샤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두툼한 백지에 아름다운 글씨를 그리는 일이 정말 좋았다.

"설리 학교에 보내길 잘했어."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앨리스는 설리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다. 요리사의 딸과 같이 노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싶어 했

다. 앨리스는 학교에서 큰 소리로 울고 그림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방에서 나왔다. 레이샤는 몇 주 동안 엄마를 본 적이 없었다. 앨리스가 엄마를 만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엄마가 벽난로 장식에 놓여 있던 촛대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도자기 촛대가 산산조각 났다. 레이샤는 조각을 주우러 달려갔다. 엄마와 아빠는 홀의 큰 계단 옆에 서서 서로에게 고함을 질러댔다.

"걘 내 딸이기도 해요! 엄마인 내가 보내도 된다고 하잖아요!"

"당신에겐 이 일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어! 질질 짜는 술꾼이라니, 아이들에게 최악의 본보기인 주제에… 이런데도 내가 고상한 영국 귀족을 얻은 줄 알았지!"

"당신은 투자한 대로 얻었어! 아무것도 못 얻었지! 당신이 나나 다른 사람에게서 뭘 필요로 한 적도 없었지만!"

"그만하세요!"

레이샤가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정적이 내려앉았다.

도자기 파편에 손을 베었다. 피가 용단으로 흘러내렸다. 아빠가 서둘러 달려오더니 레이샤를 안아올렸다.

"그만해요." 레이샤는 흐느껴 울었다.

"레이샤, *너야말로* 그만해라.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너는 상처받지 않아야 해. 최소한 그만큼은 강해야 한다."

레이샤는 아빠의 침착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묻었다. 앨리스는 칼 센드버그 초등학교로 전학해서 요리사의 딸과 같은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

몇 주 뒤에 아빠는 엄마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기 위해 병원으로 떠난다고 했다. 엄마가 나오자 아빠는 엄마가 한동안 다른 곳에 가서 살 거라고 했다. 엄마와 아빠는 행복하지 않았다. 레이샤와 앨리스는 아빠와 같이 살면서 가끔 엄마를 보러 갈 것이다. 아빠는

> 둘에게 아주 신중하게, 진실에 해당하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했다. 진실은 매우 중요했다. 레이샤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실함이란 자신에게, 스스로의 특별함에 솔직해지는 것이다. 스스로의 개성에. 주체적인 개인은 진실을 존중했고, 그러므로 언제나 진실을 말했다.
>
> 엄마는 – 아빠가 말한 적은 없었지만 레이샤는 알고 있었다 – 진실을 존중하지 않았다.
>
> "엄마가 안 갔으면 좋겠어."
>
> 앨리스가 말했다. 앨리스가 울음을 터뜨렸다. 레이샤는 아빠가 앨리스를 안아주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빠는 그러

지 않았다. 아빠는 그저 레이샤와 앨리스를 내려다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레이샤는 앨리스의 몸에 팔을 둘렀다.

"앨리스,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잘하면 돼! 학교에 갈 때 빼고는 내가 늘 너랑 같이 놀게.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게 말이야!'

앨리스가 레이샤에게 매달렸다. 레이샤는 아빠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3

켄조 요가이가 미국에 강연을 하러 왔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그 다음에는 의회에서 되풀이될 특별 강연의 주제는 '저렴한 에너지의 새로운 정치적 함의'였다. 열한 살인 레이샤는 시카고 강연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준비한 자리에서 켄조 요가이에게 개인적으로 인사할 예정이었다.

레이샤는 학교에서 저온 융합 이론을 배웠다. 국제 관계 수업 시간에는 요가이가 특허를 받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저비용 생활용품의 발명이 야기한, 제3세계의 경제 성장, 구 공산주의 체제 이론의 죽음, 산유국의 몰락, 미국의 신경제 부흥과 같은 변화를 짚었다. 레이샤와 스터디원들은 국가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했던 1985년 미국 가정의 삶과, 시민 사회의 기반인 계약을 신뢰하며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2019년 미국 가정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뉴스 대본을 써서 학교의 전문가급 장비로 촬영했다.

조사 내용 중에는 레이샤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켄조 요가이를 매국노라고 생각해요."

레이샤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빠에게 말했다.

"아냐, 어떤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다. 레이샤, 일반화를 주의하렴. 요가이는 Y-에너지를 미국에서 특허 출원해 인가를 받았지. 이 나라에는 최소한 죽어가는 개인 사업의 불씨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 그의 발명 덕분에 전국이 서서히 개인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어. 일본은 천천히 따를 수밖에 없었지."

"네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단다."

수전이 말했다.

"레이샤, 땅콩도 먹으렴."

레이샤가 땅콩을 먹었다. 수전과 아빠가 결혼한 지는 채 1년도 안 되었다. 수전이 가족의 일원인 것이 아직 조금 낯설긴 했지만, 마음에 들었다. 아빠는 수전이 우리집에 매우 유익한 새 식구라고 했다. 똑똑하고 적극적이며 쾌활

했기 때문이었다. 레이샤와 같았다.

"레이샤, 이 점을 기억하렴. 인간의 사회와 스스로에 대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역할을 서로 거래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얻지. 문명의 기본적인 도구는 계약이야. 계약은 자발적이고 상호 유익한 것이다. 그와 반대인 억압은 잘못이지."

"강자에게는 약자에게서 억지로 무엇도 빼앗을 권리가 없어. 앨리스, 아가, 너도 땅콩 먹어야지." 수전이 말했다.

"전 땅콩이 싫어요."

앨리스가 대답하자, 캠든이 말했다.

"네 몸은 좋아한다. 건강에 좋아."

앨리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레이샤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앨리스는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거의 웃지 않았다.

"제 몸은 땅콩과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캠든이 성가신 듯이 대꾸했다. "아니, 했다. 땅콩을 먹으면 네 몸에 유익하니까. 이제 먹거라."

앨리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레이샤는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갑자기 빠져나갈 길이 생각났다.

"아뇨, 아빠, 보세요. 앨리스의 몸은 이득을 얻지만, 땅콩에게는 이득이 없어요! 이건 상호 유익한 상황이 아니니까 계약을 하지 않은 셈이죠. 앨리스의 말이 맞아요!"

캠든이 크게 웃더니, 수전에게 말했다.

"열한 살인데… 겨우 열한 살."

앨리스까지 웃었다. 레이샤는 기세등등하게 숟가락을 흔들었다. 그릇에 반짝이며 반사된 빛이 반대편 벽에서 은빛으로 춤췄다.

앨리스는 그래도 켄조 요가이의 강연을 들으러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친구인 줄리의 집에 놀러 가서 자고 오겠다고 했다. 줄리와 같이 머리를 말기로 했단다. 더 뜻밖에도 수전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현관에서 수전과 아빠는 좀 이상한 표정으로 서로를 보았다. 레이샤는 너무 흥분해서 두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켄조 요가이*의 강연을 들으러 가는 것이다.

요가이는 얼굴색이 짙고 호리호리한 키 작은 남자였다. 레이샤는 그의 악센트가 마음에 들었다. 요가이에게는 레이샤의 마음에 드는 특징이 하나 더 있었다. 적절한 단

어를 떠올리는 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아빠."

레이샤는 조명을 낮춘 강당에서 속삭였다.

"요가이 씨는 즐거운 사람이네요."

아빠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요가이는 숭고함과 경제학에 관해 이야기했다.

"인간의 숭고함, 인간으로서의 유일한 존엄성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단지 귀족 신분으로 태어난다고 저절로 존엄함과 가치를 얻는 게 아닙니다. 역사만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존엄함과 가치는 상속받은 재산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상속자가 도둑, 건달, 착취자, 잔혹한 사람, 세상을 자신이 태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만들어놓고 떠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존엄함과 가치가 단지 존재 그 자체로부터 저절로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쇄살인범은 존재하지만 사회에 부정적인 가치를 더할 뿐이고 살해 욕구에는 어떤 존엄성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존엄성, 진정한 숭고함은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해낼 수 있는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성취할 기회와 자신의 성취를 타인과 거래할 기회를 빼앗는 일은 그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존엄성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억압, 인간에게서 스스로 성취하려는 노력을 박탈하는 모든 권력은 정신을 상처 입히고 사회를 약화시킵니다. 징병제, 절도, 사기, 폭력, 복지, 법적 대리인의 부재. 이 모든 것들이 선택할 기회,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기회, 성취의 결과물을 타인과 거래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억압은 사기입니다. 억압으로는 어떤 새로운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자유, 성취할 자유, 성취의 결과물을 자유롭게 거래할 자유를 통해서만 인간의 존엄성과 숭고함에 어울리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박수를 너무 열심히 쳐서 손이 아팠다. 아빠와 강단 뒤편으로 가면서는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켄조 요가이!

하지만 강단 뒤는 예상보다 훨씬 붐볐다. 온통 카메라였다. 아빠가 말했다.

"요가이 씨, 제 딸 레이샤를 소개하겠습니다."

카메라들이 별안간 가까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한 일본인이 켄조 요가이에게 무어라 귓속말을 하자 요가이는 레이샤를 더 자세히 살폈다.

"아, 그렇군요."

"레이샤, 이쪽 보렴."

누군가 레이샤를 불렀다. 시키는 대로 돌아보자 로봇 카메라가 얼굴로 훅 다가왔다. 레이샤가 놀라서 뒷걸음쳤다.

아빠가 누군가에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카메라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한 여자가 레이샤 앞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더니 마이크를 쑥 내밀었다.

"레이샤, 잠을 전혀 자지 않으니 기분이 어때?"

"뭐라고요?"

누군가 웃었다. 친절한 웃음소리는 아니었다.

"천재를 교배해서…."

누군가 레이샤의 어깨를 잡았다. 켄조 요가이가 레이샤를 아주 단단히 움켜쥐더니 카메라들에게서 떼어놓았다. 마치 마법처럼 요가이의 뒤로 일본인들의 줄이 즉시 생겨나 아빠만 지나가게 해주었다. 세 사람은 대기실로 들어갔다. 켄조 요가이가 문을 꽉 닫았다.

"레이샤, 저들의 행동에 신경써서는 안 돼."

그가 멋진 악센트로 말했다.

"절대 그래선 안 된다. 오래된 동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지. '개가 짖든 말든 마차는 달린다.' 네 개인적인 마차가 무례하거나 질투하는 개들의 짖는 소리에 속도를 늦추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해."

"안 그럴 거예요."

레이샤가 헐떡였다. 그의 말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보고 아빠와 논의해볼 시간이 있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을 권력도 무력도 아닌 스스로의 특별하고 개인적인 노력으로 바꾸어가는 사람인 켄조 요가이에게 압도당해 있었다.

"저희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철학을 배워요."

켄조 요가이가 아빠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사립 학교야. 하지만 레이샤의 동생도 공립 학교에서 피상적이긴 하지만 배우고 있다네. 켄조, 느리긴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네. 변하고 있어."

레이샤는 아빠가 앨리스가 오늘밤에 같이 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집에 돌아와서 레이샤는 몇 시간 동안 방에 앉아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다음 날 아침, 앨리스가 줄리의 집에서 돌아오자, 레이샤는 앨리스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앨리스는 화난 표정이었다.

"앨리스? 무슨 일이야?"

"지금 이대로도 내가 학교에서 충분히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

앨리스가 고함을 질렀다. "모두들 알고는 있었지만, 최소한 언니가 조용히 지내는 동안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어! 얼마 전부터는 날 안 괴롭혔단 말이야! 왜 그랬어?"

"내가 뭘 했는데?" 레이샤가 당황해서 물었다.

앨리스가 뭔가를 던졌다. 캠든 가에서 쓰는 것보다 얇은 신문 용지에 인쇄된 아침 신문이었다. 신문은 펼쳐진 채로 레이샤의 발치에 떨어졌다. 레이샤는 켄조 요가이와 자신이 나란히 찍힌 세 단짜리 사진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기사의 머릿말은 이랬다. '요가이와 미래: 남은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Y-에너지의 발명가와 억만장자 로저 캠든의 '잠들지 않는' 딸이 만나다'

앨리스가 신문을 발로 찼다.

"어젯밤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어. *텔레비전*에! 내가 잘난 척하거나 비굴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이에 언니는 나가서 이런 짓을 하다니! 이제 줄리는 다음 주 파자마 파티에 날 초대하려고도 않겠지!"

앨리스는 넓게 구부러진 계단을 뛰어올라가 방으로 사라졌다.

레이샤는 신문을 내려다보았다. 켄조 요가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개가 짖든 말든 마차는 달린다.* 그녀는 텅 빈 계단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앨리스! 말아올린 머리가 참 잘 어울려."

낸시 크레스는 1948년 뉴욕에서 태어나 70년대 중반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실적인 개연성을 갖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작품들을 다수의 SF잡지에 발표해왔다. 유전자 조작과 같은 생명 공학 기술을 다룬 하드 SF에 여성적 감성을 결합한 중단편으로 특히 유명하다. 〈스페인의 거지들〉은 불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불면인(sleepless)' 3부작의 출발점이 된 작품으로, 유전자 조작,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윤리적 논쟁을 이란성 쌍둥이 자매의 갈등과 성장을 통해 그려내 휴고상, 네뷸러상, 아시모프상, SF 크로니클상을 휩쓸었다.